상생의 길 2題

유망 스타트업 '키우고' 中企 후원자 역할 '톡톡'

LG전자

LG전자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손잡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활성화에 앞장선다.

LG전자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박일평 사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협약에 따라 공개형 버전의 웹OS 소스코드를 오픈하기로 했다. 웹OS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웹OS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웹OS는 LG전자가 스마트 TV,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플랫폼이다.

LG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천한 스타트업 가운데 유망 업체를 선정해 웹OS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픈소스서밋, 오스콘 등 글로벌 오픈소스 행사에도 스타트업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웹OS는 HTML5, CSS3 등의 웹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또 LG전자가 이미 스마트 TV, 사이니지 등에 적용해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장점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역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HYUNDAI

현대자동차 노사가 동반성장 포인트로 중고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반성장 포인트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마련한 것으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해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7년 임단협에서 중소기업 우수 상품 구매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직원별로 20만 포인트(총 133억원 상당)를 지급했다.

현재까지 30%에 이르는 39억원이 중소기업 물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사내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살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 물품 구매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생산 제품 판로가 어려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위한 이 같은 포인트 지원의 효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가격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은 유통 마진을 최소화 해 합리적 가격에 제품을 제공한다. 시중 온라인 상품과 비교해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좋은 품질인데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최근 동반성장몰에 납품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도전했는데, 반응이 좋아 매출 증대와 브랜드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시스템 '2018협력사의 날' 행사에서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글로벌시장 공략, 협력사와 동반 성장"

한화시스템 '2018 협력의 날' 행사

한화시스템이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2018 협력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자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2009년부터 매년 협력사의 날 행사를 열어오면서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협력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특히 올해 행사의 경우 생산 및 개발 각 부분에서 뛰어난 상생협력 사례가 되어준 총 10개 협력업체를 선정해 '18년 우수업체' 시상을 진행했다.

또한 중장기 경영 계획 및 글로벌 시장 수출 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협력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방산제도 및 원가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품질개선 및 원가검증 활동 등 협력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상호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 국내 방산 시장에서의 공동 성과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우수 협력업체 수상을 한 연합정밀의 김용수 대표이사는 "중장기 비전과 글로벌 수출 전략에 대한 공유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한화시스템의 의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며 "품질 및 공정개선 활동, 인센티브 도입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갤럭시 S9·S9+' 출시 함께 즐겨요~"

삼성전자, 600명 '팬파티' 개최
혁신기능 연계 프로그램 진행

'갤럭시 팬 파티'를 즐기고 있는 팬들의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S9'와 '갤럭시 S9+(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 소재의 문화 공간 '어반 소스'에서 개최한 '갤럭시 팬 파티 in 서울' 행사에 총 600여명의 갤럭시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팬들과 함께 갤럭시 사용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갤럭시 S9·S9+의 새로운 기능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갤럭시 S9·S9+의 혁신적인 기능과 연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자인 딩고 우상범 딩고 대표가 갤럭시 S9·S9+의 슈퍼 저조도, 슈퍼 슬로 모션 등의 카메라 기능과 증강현실(AR) 이모지 기능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 시대를 제시했다.

파워유튜버 '가전주부' 최서영씨는 AR 이모지와 스테레오 스피커, 빅스비 비전의 번역 기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방송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갤럭시 S9·S9+의 슈퍼 슬로 모션 기능을 형상화한 스트릿 댄서 제이블랙의 퍼포먼스와 함께 10㎝, 랄라스윗, 김태우의 감미로운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다.

갤럭시 팬 파티는 앞으로 2주간 광주(23일), 부산(24일), 대전(30일), 대구(31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갤럭시 S9·S9+ 사전 예약 구매자뿐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삼성전자 소셜 채널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에어부산 대구-김포 편도 '2만6000원' 고정

에어부산이 20일부터 대구~김포 노선의 항공권을 편도 총액 2만6000원 '고정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18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이 모두 포함된 편도 총액이 2만6000원이며, 평일·주말·성수기 구분 없이 고정가로 판매한다. 이는 성수기 요금 대비 최대 76%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고속철 대비 1만7500원가량 저렴하다. 다만 금요일과 일요일 대구발 김포행 항공편의 편도 총액은 3만5000원이다.

대구~김포 노선 고정가 항공권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탑승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8일 6월 30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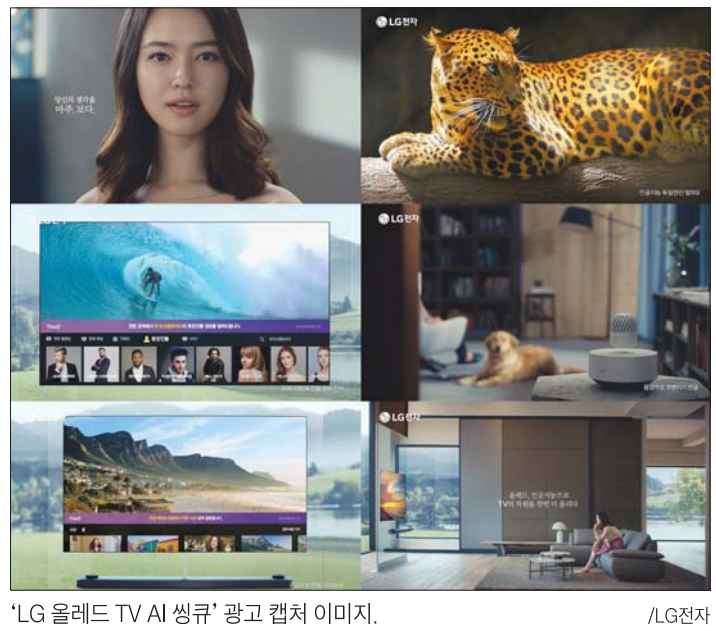
에어부산은 대구~김포 노선을 주 5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대구발 항공편은 매주 월·화·목·금·일요일 오후 8시 5분에 출발하고 김포발 항공편은 매주 월·화·수·금·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올레드 TV 씽큐'로 업그레이드 된 생활… 광고에 담다

LG전자가 16일 신제품 'LG 올레드 TV 인공지능(AI) 씽큐(ThinQ)'의 광고를 선보이면서 TV 시장에서 AI 리더십 강화에 본격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5일 공개된 '인공지능 TV로 앞서가다'의 후속편으로 선보이는 본편 광고다. 전편은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DeepThinQ)' 적용으로 또 한 번 진화한 올레드 TV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면, 본편은 인공지능 올레드 TV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생활상을 보여준다.

광고는 올레드 TV 주요 모델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과 특장점을 집중 소개한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α9)'으로 더 선명하고 완벽해진 화질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렸다.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는 알파9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하게 원색에 가까운 컬러를 표현해낸다.


'LG 올레드 TV AI 씽큐' 광고 캡처 이미지. /LG전자

또, 복잡한 조작 없이 말 한마디로 TV를 제어하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변기기와 연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정보 검색 ▲주변기기 연결 ▲구글포토 연동 사진 검색 등 인공지능 기능으로 편리해진 생활을 담아냈다. /구서윤 기자